2,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실 허자경, 이진무, 이창훈, 장준복, 이경섭, 조정훈

ABSTRACT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Women in Twenties and Thirties on Traditional Korean Medical Treatment on the Leukorrhea

Ja-Kyung Heo, Jin-Moo Lee, Chang-Hoon Lee, Jun-Bock Jang, Kyung-Sub Lee, Jung-Hoon Cho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that women in 20s and 30s have on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treatment on the leukorrhea.

Methods: We studied the perception of TKM treatment by questionnaire From October 1 to November 20, 2010.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50 women and we studied 47 except 3 questionnaire which have inappropriate answer.

Results:

- 1. In 47 women, 46(97.9%) women have heard about leukorrhea, 1(2.1%) woman hasn't heard about it.
- 2. In 32 women who suffered from the leukorrhea, 14(43.8%) women checked up for leukorrhea. 18(56.2%) women doesn't checked. 10 of 14 women took the medical treatment (drug or injection) and 2 of 14 women took the TKM treatment.
- 3. In 32 women, 16(50.0%) women know about TKM treatment for leukorrhea, 16(50.0%) women don't know.
- 4. In 32 women, 20(62.5%) women have intention of TKM treatment for leukorrhea, 2(6.2%) women don't have, and 10(31.3%) women don't know. The biggest obstacle was the high cost of TKM treatment.

Conclusions: Many women are willing to take TKM treatment on the leukorrhea. We need more accumulation of data for demonstrat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TKM treatment.

Key Words: Leukorrhea, Perception, Traditional Korean Medical

교신저자(조정훈)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부인과

전화 : 02-962-9162 이메일 : moxa@dreamwiz.com

I. 서 론

帶下는 '從帶脈而下'의 뜻으로 女性性 器 分泌物을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말하 는 帶下는 이 성기 분비물이 증가하여 膣口外까지 유출되어 외음부 또는 그 부 근을 습윤 또는 오염하는 상태를 지칭하 나 생리적인 성기의 분비물은 외음부까 지 배출될 정도로 양이 많지 않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므로 帶下는 생리적인 帶 下와 병리적인 帶下로 구분하며, 女性性 器의 병변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 고 객관적인 證票이므로 부인과의 임상 진단 상 중요한 자료가 되며, '十女九帶' 라 할 만큼 상당수의 여성이 가지고 있 는 증상이다¹⁾. 대부분 위중한 상태를 나 타내는 것은 아니며 자궁경부, 질, 난관 등의 단순한 감염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²⁾.

실제로 帶下는 내원 환자 문진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증상이며, 최소한 1/3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²⁾. 최근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로 인한 각종 생식기 감염으로 帶下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호르몬제 복용, 성생활의 개방화, 스트레스의 증가 등에 따른 비특이적 요인에 의한 帶下 역시 증가되고 있으므로 帶下 환자에 대한 한 방부인과 진료는 유망한 분야로 생각된 다. 帶下의 한의학적 치료법은 자연에 가까우며 부작용이 적고 한방 辨證에 따 른 맞춤치료를 하므로, 여성의 보건증진 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방 의료기관에 서 帶下를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은 유병 율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이는 帶下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은 대중의 인식 이 미비하거나 인식이 있더라도 帶下 치 료에 있어서 일차적 선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帶下에 관련된 한의학 논문으로는 문헌고찰³⁻⁶⁾과 한약의 치료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⁷⁻⁹⁾이 있었는데, 帶下의한방치료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본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帶下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정도 및 帶下의한방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향후 帶下에 대한 한방부인과의 전략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본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대 상

연구대상은 2,30대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고, 50부의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고 이 중응답내용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47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설문지는 자가기입식을 사용하였고, 직접 작성을 원칙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帶下에 대한 인식과 치료,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帶下 인식과 치료에 관한 질문 은 帶下 여부, 帶下 양상 및 帶下 치료 여부, 치료 종류 등으로 구성되었고, 帶 下의 한방 치료 인식도에 관한 질문은 帶下에 대한 한방 치료에 관한 인식, 치 료 여부, 선호도 및 선호와 비선호의 이유로 이루어졌다. 帶下의 한방 치료 선택과 비선택의 이유 등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Ⅲ. 결 과

1.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된 47명 중 20~24세가 7명(14.9%), 25~29세가 17명(36.2%), 30~34세가 18명 (38.3%), 35~39세가 5명(10.6%)이었다.

결혼 상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34명 (72.3%)이었고, 결혼한 여성은 13명(27.6%)이었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3명(6.4%), 대학교 졸업 41명(87.2%), 대학원 졸업 이 3명(6.4%)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4명(51.1%), 상업 및 서비스직이 7명(14.9%), 전문직 종사자(교사, 간호사 등)가 9명(19.1%), 주부가 3명(6.4%), 학생이 3명(6.4%), 기타가 1명(2.1%)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o. of
v arrable		case(%)
	20-24	7(14.9%)
Λ σο	25-29	17(36.2%)
Age	30-34	18(38.3%)
	35-39	5(10.6%)
	High school	3(6.4%)
Education	University	41(87.2%)
	Graduate school	3(6.4%)
	Clerical	24(51.1%)
	Service	7(14.9%)
Occupation	Professional	9(19.1%)
	House wife	3(6.4%)
	Student	3(6.4%)

2. 帶下에 대한 인식도

帶下에 대해 들어 보았다는 사람이 47 명의 응답자 중 46명(97.9%)이었고, 들 어 본 적이 없다고 한 사람이 1명(2.1%) 이었다.

Table 2. Have You Ever Heard about Leukorrhea?

	No. of case(%)
Yes	46(97.9)
No	1(2.1)
Total	47(100)

3. 帶下에 대한 정보 제공자(복수응답 가능)

帶下에 대한 정보 제공자는 47명의 응답자 중에서 친구나 이웃 등 비 의료인에게 들었다는 사람이 22명(46.8%)으로가장 많았고, 대중매체(방송, 신문)가 그다음으로 13명(27.7%), 의사나 한의사 등의료인에게서 정보를 얻었다고 한 사람이 9명(19.1%), 인터넷이 6명(12.8%), 잘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4명(8.5%)이었다.

Table 3.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Leukorrhea(multi chosen)

	No. of
	case(%)
Families, friends, neiborhood	22(46.8)
The mass media	13(27.7)
(television or newspaper)	13(21.1)
Hospital, clinics, medical	9(19.1)
doctor	3(13.1)
The internet	6(12.8)
Unknown	4(8.5)

4. 帶下의 불편감 여부와 帶下의 양상

帶下로 인해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거

나 현재 고민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7명중 32명(68.1%)이 '예'라고 대답했고, 15명(31.9%)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의 질문은 帶下의 불편감여부에 '예'라고 대답한 32명을 대상으로진행하였다.

帶下가 신경 쓰인 정도를 묻는 질문에 22명(68.8%)은 '조금 신경쓰인다'라고 하였고, 5명(15.6%)은 '아주 많이 신경쓰인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5명(15.6%)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帶下의 양에 대한 질문에 '양이 보통 이다'가 13명(40.6%), '배란기, 생리전 등 에 가끔 냉이 나온다'가 13명(40.6%), '양 이 많다'가 5명(15.6%), '양이 적다'가 1 명(3.1%)이었다.

帶下의 색깔에 대한 질문에는 투명한 흰색이 21명(65.6%), 황색이 9명(28.1%), 회색빛이 1명(3.1%)이었고, 기타 응답으로 때에 따라 다르다고 한 사람이 1명 있었다.

Table 4. Have You Ever Been Worried about Leukorrhea?

	No. of case(%)
Yes	32(68.1)
No	15(31.9)
Total	47(100)

7. 帶下와 관련된 의료 행위 실천여부와 치료방법 및 선택경로

帶下 증상과 관련한 치료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32명 중 14명(43.8%)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18명(56.2%) 은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帶下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14명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에 대하여는(복수 응답가능) 양방 산부인과에서 양약 혹은 주사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명으로 71.4%에 달하였고, 양방 산부인과에서 질정제치료를 받은 사람이 4명으로 28.6%, 한방 치료(한의원, 한방병원 등)를 받았다는 사람이 2명으로 14.3%였으며, 양방산부인과에서 치료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람이 1명(7.1%)이었다.

帶下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해당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경우가 7명으로 50.8%, 언론보도(방송, 신문)를 통한 경우가 3명으로 21.4%였다. 의료진의 권유로 인한경우가 2명으로 14.3%였고, 친구의 권유와 인터넷 검색이 각각 1명(7.1%)이었다.

Table 5. Have You Ever Been Treated for Leukorrhea?

	No. of case(%)
Yes	14(43.8)
No	18(56.2)
Total	32(100)

Table 6. Medical Treatment for Leukorrhea(multi chosen)

	No. of
	case(%)
Western medical center (phamarcy, injection)	10(71.4)
Western medical center (vaginal tablet)	4(28.6)
Oriental medical center	2(14.3)
Western medical center (observation)	1(7.1)

6.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과 치료경험 유무 및 그 이유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총 32명 중 16명(50.0%)이었 고, 듣지 못했다고 한 사람은 16명(50.0%) 이었다.

帶下 증상으로 한방 치료 경험이 있는 나는 질문에서는 32명 중 2명(6.3%)이한방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30명(93.7%)은 한방 치료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한방 치료를 받아본 2명 중 1명은 한방 치료 후 '증상이많이 호전되었다'고 하였고, 나머지 1명은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방 치료를 받게 된 이유(복수응답 가능)에서는 '본인의 판단'이 1명(50%), '지인의 권유'가 1명(50%)이었다.

한방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복수응답가능)에 대해서는 帶下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도 될 듯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13명으로 43.3%, 한방 의료기관에서 帶下 치료를 시행하는지 알지 못해서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가 11명으로 36.7%, 양방 치료가 더효과적일 것 같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4명으로 13.3%, 한방 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더딜 것 같아서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가 2명으로 6.7%였다. 이외 기타 응답으로 1명은 '생각은 있으나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였고, 2명은 '양방 치료가접근성이 더 좋아서'라고 하였다.

Table 7. Do You Know about Oriental Medical Treatment for Leukorrhea?

	No. of case(%)
Yes	16(50.0)
No	16(50.0)
Total	32(100)

7.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한 향후 선호도

한방 치료에 대한 향후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총 32명 중 20명(62.5%)이 한방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였 고, 받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2명(6.2%) 이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31.3%)이었다.

Table 8. Intention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for Leukorrhea

	No. of case(%)
Yes	20(62.5)
No	2(6.2)
Don't know	10(31.3)
Total	32(100)

8. 帶下 치료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이유(복수응답)

帶下 한방 치료를 받겠다고 한 사람의 선택 이유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 은 양방 치료(양약, 주사 등)에 대한 두 려움과 거부감 때문이라고 10명(50%)이 대답하였고, 양·한방 치료를 모두 받고 싶어서가 8명(40%), 한방 치료에 대한 선호가 6명(30%)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 답으로 한명은 양방 치료의 일시적 효과 때문이라고 답했고, 또 다른 한명은 양 방 치료는 근본적 치료가 안될 것 같아 서라고 답하였다.

Table 9. Reasons of Choos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for Leukorrhea(multi chosen)

	No. of case(%)
Worry and fear about	Case(/0)
western Medicine	10(50)
(phamacy, injection) Simultaneous use of both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8(40)
Preference of oriental	6(30)
medical treatment	2(10)
Others	2(10)

9. 帶下 치료를 위해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복수응답)

帶下 한방 치료의 비선택 이유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고가의 비용으로 4명(33.3%)이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양방 치료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가 3명(25%), 한약 복용이 싫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1명(8.3%), 치료 자체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가 1명(8.3%)이었다. 기타 대답으로 침치료가 무서워서라는 대답과 양방치료에 비교해 효과가 더딜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있었다.

Table 10. Reasons of Not Choosing Oriental Medical Treatment for Leukorrhea (multi chosen)

	No. of case(%)
High price	4(33.3)
More familiar with western medicine	3(25)
Antipathy to take herb medicine and lack of Confidence in oriental medical treatment	1(8.3)
Others	3(25)

10. 帶下 치료시 선호하는 한방 치료방법(복수응답)

帶下의 치료로 고려해보고 싶은 한방 시술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약치료가 20 명(62.5%), 한방 외용제(좌욕제, 연고, 크 림 등)가 11명(34.4%), 침치료가 8명(25%), 한방 질정제가 7명(21.9%), 뜸치료라고 한 사람이 6명(18.8%)이었다.

11. 한방 치료로 효과적일 것 같은 한방부인과질환(복수응답)

한방 치료로 효과가 좋을 것 같은 한

방 부인과질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자 설문을 하였는데, 산후보양이라고 답 한 사람이 17명(53.1%), 월경통이 17명 (53.1%), 냉대하가 11명(34.4%), 갱년기 장애가 9명(28.1%), 임신 중 관리는 4명 (12.5%), 월경전 증후군이 3명(9.4%)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帶下란 從帶脈而下의 뜻으로 좁은 의미에서 여성 성기의 비정상적인 분비물을 총칭하는데, 정상 상태의 모든 생식기 점막은 그 자체의 분비물이나 내강의상부로부터의 분비물로 적셔져 있으며대개의 경우 분비물이 질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외부 분비는 정상 분비물의 양이 지나치거나 생식내강의 어느 부위의 감염에 연관되어 생기는 이상 삼출물이다¹⁰⁾.

≪素門・骨空論≫11)에서 "任脈爲病. 男 子內結七疝, 女子帶下癥聚"라 했고, ≪素 門·玉器眞臧論≫¹¹⁾에서 "脾傳之身病名曰 疝少腹免熱而痛, 出白一名蠱"라 하여 처 음으로 기록된 이래 帶下一門으로 여성 의 性器疾患을 觀察治療하였다. 巢¹²⁾는 "帶下五色候"라 하여 五臟의 병기에 따 라 五色으로 구분하여 배속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帶下를 분류하여 언급하였 다. 廣義의 帶下는 婦人의 月經病, 姙娠 病, 産後病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 질병은 모두 束帶以下에 발생한다는 점 에서 《金匱要略》13)에서 "婦人爲病, 因 虚積冷結氣, 爲諸經 水斷絶, 至有歷年, 血寒, 積結胞門, 寒傷經絡凝堅, 在上, 嘔 吐涎唾…, 在中盤結, 繞臍寒疝…, 在下未 多…,經候不均…,此皆帶下…"라고 말하고 있다. 《史記》에서 "婦人科醫가 생겨나 '帶下醫'가 되었다"라 한 것도 바로 廣義의 帶下를 설명한 것이다¹⁴⁾. 狹義의 帶下는 질도에서의 白, 黃, 靑, 黑, 赤白混合 등의 汚濁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의 유출이 있는 것을 帶下病이라고 한다. 《古今醫方》에서는 '流穢物이 或은 白涕와 같고 或은 紅津과 같고 혹은 누렇기가 爛瓜와 같고, 或은 푸르기가 泥澤과 같고, 或은 검기가 衄血과 같다'라고 하였다. 帶下라 함은 보통狹義의 帶下를 지칭하는 것이다¹⁵⁾.

한의학에서는 帶下를 원인에 따라 크 게 六淫性帶下,內傷性帶下,瘀血癥痂性 帶下,五色帶下로 나누는데,六淫性帶下 의 원인을 세분하면 濕熱性帶下,風冷性 帶下,寒濕性帶下 등이 이에 속하며,內 傷性帶下는 濕勝帶下,食毒帶下,七情帶 下,濕痰帶下,熱多帶下로 구분할 수 있고,瘀血癥痂性帶下는 瘀血帶下,癥痂帶 下의 二種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五色 帶下는 五臟帶下라고도 하며 帶下의 色 態에 따라 白,靑,黃,黑,赤의 五種으로 구분하다⁸⁾.

서의학적으로는 帶下를 크게 生理的 帶下와 病理的 帶下로 나는다. 生理的 帶下는 자궁경관의 분비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질점막의 상피세포에서 삼출 되는 소량의 삼출물과 월경전기에 난관 의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소량의 삼출 물과 외음부 및 질전정에서 분비되는 소 량의 삼출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정부의 bartholin씨 선은 성적 홍분시에만 다량 의 투명 점액을 분비할 뿐이며 자궁체부 또한 다수의 분비선이 있기는 하나 분비 기가 되어야 약알카리성의 분비물을 분 비하며 양은 근소하여 질 내까지 유출되지는 않는다 $^{15)}$.

病的인 帶下는 帶下의 성상에는 변화 가 없고 양이 증가하는 機能性 帶下와 양의 증가 뿐만 아니라 濃性, 血性을 띄 는 器質性 帶下로 大別된다. 機能性 帶 下의 원인은 난소의 내분비 기능 장애에 기인하며, 자궁 후굴의 경우에 초래되는 鬱血性 帶下도 그 성상에는 변화가 없고 양만 증가하는 機能性 帶下에 속한다. 器質性 帶下는 임균, 양농균, 결핵균 등 에 의해 질염, 난관염, 난소염 등이 발생 하거나 악성의 자궁종양, 육종, 융모상피 종 등에 기인한다¹⁶⁾. 양방에서 器質性 帶 下의 치료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경우 는 metronidazole을. 진균에 의한 경우는 항진균약제를 사용한다. 염증성 질염의 경우 clindamycin 크림을 사용하며, 자궁 경관염인 경우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한 다2).

그런데, 최근에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 진 균주로 인한 각종 생식기 감염으로 帶下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호 르몬제 복용, 성생활의 개방화, 스트레스 의 증가 등에 따른 비특이적 요인에 의 한 帶下 역시 증가되고 있다. 물론 세균 에 의한 여성 생식기의 감염으로 인한 帶下는 우선적으로 항생제를 중심으로 한 양방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최근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帶下 환 자들 중에는 항생제 치료로 일시적인 증 상 호전만 보일 뿐, 만성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 서 帶下 환자에 대한 한방부인과 진료는 유망한 분야로 생각된다. 帶下의 한의학 적 치료법은 자연에 가까우며 부작용이 적고 한방 辨證에 따른 맞춤치료를 하므 로, 여성의 보건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방 의료기관에서 帶下를 호소하는 환자의 비율은 유병율에 비해적은데, 이는 帶下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인식이 있더라도 帶下 치료에 있어서 일차적 선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帶下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정도 및 帶下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향후 帶下에 대한 한방부인과의 전략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2,30대의 여성으로, 30~34세가 18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5~29세로 17명(36.2%)이었고 20~24세가 7명(14.9%), 35~39세가 5명(10.6%)으로 총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帶下에 대해 들어 보았다는 사람이 47 명의 응답자 중 46명(97.9%)이었고, 들 어 본 적이 없다고 한 사람이 1명(2.1%) 으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帶下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帶下에 대한 정보 제공자는 47명의 응답자 중에서 친구나 이웃 등 비의료인에게 들었다는 사람이 22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매체 (방송, 신문)가 그 다음으로 13명(27.7%) 이었다. 이를 통해 帶下 정보 제공에 있 어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帶下에 대한 한방 치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 사료된다.

帶下로 인한 불편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7명중 32명(68.1%)이 '예'라고 대답했고, 15명(31.9%)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많은 수의 여성들이 帶下로 인해 불편감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帶下가 신경쓰인 정도는 '조금 신경쓰인다'가 22명(68.8%)으로 가장 많았으며, 帶下의 양에 있어서는 '양이 보통이다'가 13명(40.6%)으로 가장 많았다. 帶下의 색깔에 대한 질문에는 투명한 흰색이라고 답한 사람이 21명(65.6%)으로 가장 많았다.

帶下와 관련된 의료 행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帶下를 고민한 적이 있는 32 명 중 14명(43.8%)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帶下 증상에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인식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帶下 치료를 받은 14명의 치료 방법은 양방 산부인과에서 양약 혹은 주사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명으로 71.4%였고, 양방 산부인과에서 질정제 치료를 받은 사람이 4명으로 28.6%를 차지하여, 젊은여성들에서 帶下 치료의 일차적 선택이양방 치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한방 치료(한의원, 한방병원)를 받았다는 여성이 2명(14.3%) 있었는데, 2명 모두양방치료 경험이 있었다. 2명 중 1명은한방치료의 선택동기가 지인의 권유라고 하였고, 나머지 1명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라고 답하였다.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총 32명 중 16명(50.0%)이었 고, 듣지 못했다고 한 사람도 16명(50.0%) 이었다.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帶下 의 한방 치료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실 제적으로 한방 치료를 받아본 사람은 2 명이었다. 한방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帶下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그냥 지나쳐도 될 듯 하였기 때문이라고답한 경우가 13명(43.3%), 한방 의료기관에서 帶下 치료를 시행하는지 알지 못해서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가 11명(36.7%), 양방 치료가 더 효과적일 것같아서라고 답한 경우가 4명(13.3%), 한방 치료의 효과가 없거나 더딜 것 같아서받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가 2명(6.7%)이었다.

한방 치료에 대한 향후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총 32명 중 20명(62.5%)이 한방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였 고. 받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2명(6.2%) 이었으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31.3%)이었다. 帶下 한방 치료를 받 겠다고 한 사람의 선택 이유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양방 치료(양약, 주 사 등)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으 로 10명(50%)이 대답하였고, 양·한방 치 료를 모두 받고 싶어서가 8명(40%), 한 방 치료에 대한 선호가 6명(30%)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帶下 한방 치료를 받 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고가의 비용으로 4명(33.3%), 양방 치료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가 3명(25%), 한약 복용이 싫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1명(8.3%)이 었다.

帶下의 치료로 받고 싶은 한방 시술을 문는 질문에서는 한약 치료가 20명(62.5%), 한방 외용제(좌욕제, 연고, 크림 등)가 11명(34.4%), 침치료가 8명(25%), 한방 질정제가 7명(21.9%), 뜸치료라고 대답한 사람이 6명(18.8%)으로, 帶下의 한방치료로서 한약치료, 침치료 뿐 아니라 한

방 외용제나 질정제에 대해서도 젊은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帶下와 관련된 다양한치료법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번 연구에서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 한 인식은 절반 정도의 여성에서 있었고, 한방 치료에 대한 향후 선호도는 62.5% 의 여성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환자 들의 인식이 높아진다면 치료의 대중성 을 확보하고 帶下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 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帶下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실제로 한방 치료를 받는 행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같이 구체적인 방안 의 홍보를 통해, 한방 치료의 효율성과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향후 한방 부인과의 치료 영역 확대를 위해 고비용의 개선, 장기간 복용을 위 한 한약 제형의 변화, 한약 외 여러 치료 방법(한방외용제, 한방질정제 등)의 개 발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帶下의 한방 치료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이 다소 주관적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상자의 수가적어서 전체 2,30대 여성 집단의 표본이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2,30대의 젊은 여성에서 帶下의 한방 치료인식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향후 관련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좀 더 발전된 설문지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帶下에 대한 임상 시험을 통해 한방치료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2010년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에 성실히 응답한 47부를 통해 帶下의 실태와 帶下에 대한 인식도 조사및 帶下의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연구대상 47명 중 帶下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46명(97.9%), 듣지 못한 사람 은 1명(2.1%)이었다.
- 2. 帶下에 대한 정보 제공자는 47명의 응답자 중에서 친구나 이웃 등 비의료인에게 들었다는 사람이 22명(46.8%), 대중매체(방송, 신문)가 13명(27.7%),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에게서 정보를 얻었다고 한 사람이 9명(19.1%), 인터넷이 6명(12.8%), 잘 모르겠다고대답한 사람이 4명(8.5%)이었다.
- 3. 帶下의 불편감 여부에 대해서 32명 (68.1%)이 '예'라고 대답했고, 15명 (31.9%)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32명 중 帶下가 '조금 신경쓰인다'고 한 사람이 22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帶下의 양에 대해서는 '양이 보통이다'라고 한 사람이 13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帶下의 색깔에 대한 질문에는 투명한 흰색이 21명 (65.6%)으로 가장 많았다.
- 4. 32명 중 帶下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14명(43.8%),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18명 (56.2%)이었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 는 14명 중 10명(71.4%)이 양방산부 인과에서 양약 혹은 주사 치료를 받

았고, 2명(14.3%)은 한방치료를 받았 다

- 5. 帶下의 한방 치료를 아는 사람은 32명 중 16명(50.0%)이었고, 모르는 사람도 16명(50.0%)이었다.
- 6. 향후 帶下 증상으로 한방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20명(62.5%), 받 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2명(6.2%),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10명(31.3%) 이었다.
- 7. 帶下 한방 치료를 받겠다고 한 선택 이유로는 양방치료(양약, 주사 등)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때문이 10명 (50%)으로 가장 많았고, 양·한방치료 를 모두 받고 싶어서가 8명(40%), 한 방치료에 대한 선호가 6명(30%)이었 다
- 8. 帶下 한방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고가의 비용이 4명(33.3%), 양방치료에 더 익숙해져 있어서가 3 명(25%), 한약 복용이 싫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가 1명(8.3%)이었다.
- 9. 帶下의 치료로 고려해보고 싶은 한방 시술에는 한약치료가 20명(62.5%), 한 방외용제(좌욕제, 연고, 크림 등)가 11명(34.4%), 침치료가 8명(25%), 한 방질정제가 7명(21.9%), 뜸치료라고 대답한 사람이 6명(18.8%)이었다.

투	고	일	:	2011년	4월	30일
심	사	일	:	2011년	5월	9일
심사	완료	일	:	2011년	5월	11일

참고문헌

1. 송병기. 한방부인과학. 서울:행림출판

- 사. 1992:230-9.
- 2. 한방부인과편찬위원회. 한방부인과학(상). 서울:도서출판 정담. 2001:256-65.
- 3. 윤현민, 안창범. 대하의 침구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대학교 한의 학연구소. 1999;12:5-37.
- 4. 조성희, 진천식. 대하의 색태별 분류에 따른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0;13(2):345-69.
- 5. 김지혜, 유동열. 대하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논문집. 2005; 14(2):197-204.
- 6. 김경숙 등. 대하의 치료에 다용되는약물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5;18(4):153-64.
- 7. 박준홍 등. 대하치료에 사용되는 온리 약이 질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대한 한방부인과학회지. 2007;20(2):124-38.
- 8. 金惠卿, 柳同烈. 帶下에 活用되는 利 火湯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5(2):420-6.

- 9. 양수열, 이경섭, 송병기. 婦人 前陰病 과 帶下에 응용되는 艾葉의 항균작용 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한방부인과 학회지. 1989;3(1):48-52.
- 10.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서울: 현대의학서적사. 1987:541-52.
 - 11. 홍원식. 정교 황제내경소문. 서울:동 양의학연구원출판사. 1981:74.
 - 12. 巢元方. 巢氏病源候論. 서울:대성문 화사. 1991:975-9.
 - 13. 張仲景. 金匱要略. 서울:계축문화사. 1977:183-8.
 - 14. 최은수 등. 帶下의 原因에 관한 文獻 的 考察.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93; 7(1):47-68.
- 15. 장미경, 이경섭, 송병기. 帶下에 대한 東西醫學的 比較. 대한한방부인과학 회지. 1998;11(1):83-92.
- 16.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제 4판.서울:현대의학서적사. 2007:147-62.